

한국경제

깔끔한 인상 지켜주는 투명교정, 모든 치아교정이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2-07-10 09:21



[이송이 기자] 치열이 불규칙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치아교정. 그러나 꼭 필요한 교정이면서도 교정기간 동안에는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교정기를 치아에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불편함과 더불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참 대화를 나눈 후에도 상대방이 치아교정중인지 모를 정도로 획기적인 치아교정방법이 등장했다. 바로 투명교정 장치이다.

말 그대로 교정장치가 보이지 않는 투명교정은 특수 강화 플라스틱인 레진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기술이다. 금속을 치아에 부착하는 교정과는 달리 탈부착이 가능하다.

교정용 장치도 철사가 아닌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척 간편하다. 투명교정의 치료 기간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약 1년 정도이며 2~8주 간격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투명교정 장치는 어떤 치아의 경우에도 가능할까? 아쉽게도 아직까지 모든 치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투명교정의 대상이 되는 치아상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로서는 부정교합에 적합하다.

때문에 무조건 투명교정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적절한 치아교정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일반교정은 교정장치를 치아의 바깥쪽 면에 붙여서 치아를 움직이는 교정법이다. 설측교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일반교정과 교정장치를 안쪽으로 붙이는 방법이다.

일반교정에는 금속장치나 세라믹장치, 레진장치 등이 사용된다. 금속이며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적고 기술이 발전되어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힌다.

은색의 금속교정장치인 '메탈교정'은 가장 일반적인 장치로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 크기가 많이 좋아졌다. 세라믹교정은 금속교정장치에 비하면 많이 산뜻해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콤비교정이라는 것도 있다. 콤비교정은 윗니에 설측교정장치를 이용하고 아랫니에는 일반교정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인관계가 우려되어 설측교정을 하고 싶지만 치료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면 콤비장치가 적당한 교정방법이다. 윗니는 안쪽으로 장치가 붙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아랫니는 대개 입술로 덮이게 되어 역시 장치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입술모양이 특이하지 않다면 적은 비용으로 설측교정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투명필름 교정장치는 금속으로 된 와이어나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만들어져 치열을 교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투명교정은 투명필름교정장치를 환자의 교정상태에 따라 계속 바꾸어 착용하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교정장치를 착용하면 비뚤어진 치아가 조금씩 움직여 나중에는 가지런한 치열을 갖게 됩니다"라고 설명한다.

김 원장은 또 "투명교정은 말 그대로 투명하여 잘 보이지 않고 착탈식이라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명교정은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 부정교합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이의 사이가 벌어진 경우나 심하지 않은 덧니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최근에 시술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국내 '물 좋은 해수욕장' 어디? best 5 선정**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구직자 83%, 합격 후 입사 포기 “왜 이러는 걸까요?”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 팬택 '베가 S5' 출시, 사전 공개 ... 히든카드로 갤럭시S3 잡는다?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718373>
